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461

JCCT 2021-11-57

朝鮮 後期 湖南地方 兩班家屋의 審美境界 고찰 - 전북 장수의 權熙文 家屋을 中心으로 -

The aesthetic appreciation boundary of Honam Yang-ban House in the Late Chosun Dynasty- Focused on the House of Kwon Hee-moon

권윤희*, 김귀석**

Kwon Yun Hee*, Kim Kui Suk**

요약 우리 가옥은 우리만의 특징과 철학을 담고 있다. 조선 후기의 양반가옥으로 권희문 가옥은 250여년의 기간을 두고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가옥은 누대에 걸친 가옥 주인의 사상과 철학등의 심미이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옥 사랑채의 당호인 凝汪棲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凝·汪’은 자연의 요소이며, ‘棲’는 더불어 살아감을 상징한다. 이는 自然美學의 境界·人間美學의 境界이다. 自然美學의 境界는 凝·汪의 美學으로 隱秀하고 清麗함이 특징이며, 人間美學의 境界는 棲의 美學으로 凝神과 清氣함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권희문 가옥의 심미이상은 삶의 이상을 추구하고 지향함에 있다. 朝鮮 後期에 湖南地方에 조성된 다른 양반가옥의 심미경계도 이와 같은 심미 이상을 담고 있음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주요어 : 권희문 가옥·미학·심미·境界·凝汪棲·自然美學·人間美學

Abstract Houses contain our own characteristics and philosophy. As a Yangban hous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house of Kwon Hee-moon was constructed over 250 years to the present. Therefore, this house can more objectively examine the aesthetic ideals, such as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the house owners across the generations. The name of Sarang-Chae is Ui-Wang-Seo(凝汪棲), it shows thoughts and philosophies symbolically. Ui(凝)·Wang(汪) mean the elements of nature, and Seo(棲) symbolizes living together, It is aesthetics of Nature, aesthetics of Human boundary. Aesthetics of Nature boundary is aesthetics of Ui(凝)·Wang(汪), so it is clear and fine. Aesthetics of Human boundary is aesthetics of Seo(棲), so it has meditation and purity. As such, the aesthetic ideal of Kwon Hee-moon's house pursues the ideal of life. Through the aesthetic boundary of the house of Kwon Hee-moon, we can understand the aesthetic boundary of Honam Yang-ban House in the Late Chosun Dynasty.

Key words : House of Kwon Hee-moon, Seon-bi, Aesthetics, Aesthetic appreciation courage, Embodiment of realism, Pursuit of enjoying together with common people

*정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강사, 철학박사 (제1저자)

**정회원 서일대학교 교수, 교육학박사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25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20일

Received: September 25, 2021 / Revised: October 10,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Corresponding Author: unikwon@hanmail.net

Dept. of Minerva,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I. 서론

가옥은 기후의 변화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켜주는 공간일 뿐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서로 나누고,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장소이다. 가옥은 인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단계부터 존재해 왔으며 발달하여 왔다. 본고는 조선시대 후기에 호남지방 양반가옥에 대하여 전북 장수의 권희문 가옥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권희문 가옥이 오랜 기간을 두고 오랜 세월을 두고 중수를 거쳐 조성되어 누대에 걸친 가옥 주인의 사상과 철학등의 심미이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가옥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인 측면이나 건축물적인 측면, 나아가 지역적인 측면의 특성 등에 대하여 집중되었다. 권희문 가옥도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된 바는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외형적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심미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선 후기 호남지방에 조성된 다른 양반가옥의 심미경계 연구에도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II. 권희문 가옥의 건립배경

1. 가계의 형성과 儒脈의 傳承

민속문화재인 ‘권희문 가옥’(권희문 가옥은 전라북도 시도 민속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권희문 가옥’으로 보통명사화하여 기술함)의 주인인 담헌 권희문(澹軒 권熙文, 1916~2008, 이하 담헌, Figure 1 참조)은 안동 권문의 34세손이다. 권희문 가옥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에 있다. 담헌의 선조가 이곳에 정착한 것은 그의 12대조인 권인이 한양에서 이주한 이후이다. 권인의 부친은 權常(『조선왕조실록』 『선조수정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同知中樞府事 權常卒 常天性篤孝…人以爲善行之報云”)으로 同知中樞에 이르러 영의정 동홍부원군을 증직받았다. 권인은 權常의



그림 1. 권희문 가부좌 모습
 Figure 1. Kwon heemun's seating figure

넷째 아들(권인은 권협(權峽)·권희(權禧)과 형제간으로 형제들이 모두 임진 왜란시 왜구토벌에 참전)로 한양 남산말에 있는 鑄洞에서 전북 장수로 移去하여 鎭成촌을 형성하였다.(안동권씨, 『鑄洞小譜』 上下卷, 1994, 동호문화사. 참조) 그가 여기에 터를 잡은 것은 경남 거창에서 현감으로 봉직하면서 한양을 오르내릴 때 배산임수의 풍수지리적 길지임을 눈여겨본 것이 인연이 되었다. 그는 광해군의 사화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여 중앙관직의 뜻을 버리고 초야에서 귀를 막고 세상을 잊고 살겠다는 의미로 호를 野農으로 지으며 향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담헌의 9대조인 화산 권숙(華山 權壽, 1655~1716, Figure 2 초상화 참조)은 역학에도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예학도 통달하였고 교리에도 밝아서 모르는 것이 없는 대학자였다. 그는 또한 丹家와 兵法도 旁通하였다.



그림 2. 華山 權壽 초상화
 Figure 2. hwasan kwonsuk's portrait

(최삼용, 『화산처사(華山處士) 권숙(權壽)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전라문화논총 1권, 1986, p.60.) 그는 남인으로 등용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는 황진(숙종30년~영조48년)(호는 晚隱, 자는 世疇, 汝疇, 실학자 황윤석의 부친)의 『晚隱遺稿』(황진, 『晚隱遺稿』 坤, 「卷之三」, “權處士生長南人家 能讀栗谷沙溪文字”)와 『海東遺跡』(황진, 『海東遺跡』 輔, 「權華山」, “家本世所目南人者 而自小手鈔栗谷沙溪書”)에서 알 수 있다. 묘갈명은 성호 이익(星湖 李瀼, 1681~1763)이 썼다. 이는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南人家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익은 화산과 비록 친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화산의 質行을 익히 알고 있었다.(권숙, 『華山遺稿』 卷之二 「墓碣銘」, “於是千里走乞銘 將標諸墓石 必有聞于後而止 瀼雅因人慣習其質行也”)

담헌의 8대조인 翁經(1680~1764)은 從叔이었던 華山에게 수업하였다. 그는 의리가 정밀하고 踐履가 독실하며 은거하여 道를 즐겼으나 임금이 부르시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6대조인 昌彦(?~1786)은 덕용이 嚴毅하시고 도량이 무척 컸다. 그는 갑술에 筮仕禁府都事 역임

하였으며 동생인 希彦은 결혼 후 홍역으로 기세하게 되자 부인인 남평 문씨는 자결하였다. (『鑄洞小譜』上卷, 1994, 동호문화사. p.53-54.) 5대조인 瀚(1795~1843)은 천품이 순수하고 어려서부터 穎悟하여 학문이 정숙하고 의리를 明辯하였다. 또한, 象數도 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江阜 柳壽春(1762~1834)(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상원(象遠), 호는 강고(江阜). 유성룡(柳成龍)의 후손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평소 『주자대전(朱子大全)』을 탐독하여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이 道義의 뜻을 허락하여 그의 門下에서 수학하였다. 고조인 比憲(1827~1895)은 아호를 琴軒라 하였으며 가훈을 克承하여 恭儉孝友하고 가정에 離間한 말이 없었으며 鄉隣이 덕을 欽慕하였다. 그는 漁釣로 志氣를 高尚히 하고 琴書로 志趣를 부치었다.(안동권씨, 『鑄洞小譜』上卷, 1994, 동호문화사. p.236-237.)

증조인 潤壽(1837~1876)는 아호가 野翁·德一로 天賦가 純粹하여 廉正仁厚하고 일찍이 경학에 뜻을 두어 造詣가 精透하며 律身함에 嚴하였다. 그는 가훈을 준수하여 세상에 外飾하는 것을 병으로 여길 정도였다. 그는 踐履하기를 篤實히 하여 慎思明辯하고 성리학에 치력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그를 推重히 하고 鄉黨이 矜式하였다. 그는 山林에 晦迹하여 琴書로 自適하고 거실을 巖汪이라 편하였다.

조부인 升奎(1865~1943)는 아호가 雲樵·景恒으로 천품이 剛毅하고 志慮가 深遠하였다. 그는 事親·奉祭·接賓에 있어 家法 遵守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일 처리는 正大하며 表裏가 항상 같았으며 義理를 분명하였다. 선고인 永根(1893~1958)은 아호가 肯堂·達命으로 儀容이 端莊하고 性度가 純厚하였다.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부인 林氏와 함께 事親과 奉祭에 極盡하고 誠敬을 다하여 모두가 그를 칭찬하였으며 孝子와 孝婦로 칭송되었다(안동권씨, 『鑄洞小譜』上卷, 1994, 동호문화사. p.53-54.) 담헌은 이러한 가계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선조들의 사상과 학맥을 이은 유맥을 전승하게 된다.

유가는 인간의 사회적 결합 방식을 여러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가운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제일 중시 여겨 효를 강조한다. 이는 대표적으로 『童蒙先習』에서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君臣·夫婦·長幼·朋友에 있어서 어디엔들 불가능함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효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다.’(『童蒙先習』 「總論」)고

말하는 바에서도 알 수 있다.

담헌은 이러한 유가의 가계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선조들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학문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된다. 유년시절에는 조부인 升奎(1865~1943)에게 배우다가 성장 후에는 전남 곡성의 巨儒였던 안분암(安奮菴)에게 수학하였다. 안분암은 면우 곽종석(倅宇 郭鐘錫·1846~1919)의 문인이었으므로 담헌은 면우의 再傳弟子이다.

담헌은 안분암에게 수학 후에도 여러 스승을 모시고 수학함으로써 폭넓은 유가 사유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만년에는 여러 신문, 방송과 지역 행사에 초대되어 이 시대 마지막 선비로서의 예우를 받았다.(국민일보, “넘치는 것은 좋지 않아” 원로유림 권희문 선생, 2007.01.02.) 이를 통하여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보여주었다. 평생 고향에 은거하며 의관을 정제하고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孝經』,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는 효경(孝經)의 말을 그대로 실천한 선비로서의 삶을 살았다. 선비는 본디 자기를 귀히 여기고 自適에 힘써야 한다. 담헌은 이처럼 항상 주위와 조화를 이루며 몸소 생활에서 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그는 글줄 좀 안다고 언어와 행동을 함부로 하는 이는 선비가 아닌 것을 언행이 일치된 삶을 보여주었다. (조선일보, “혼탁한 세상에 한줄기 맑은 바람-마지막 선비를 찾아서, 전북장수 담헌옹”, 2007.10.21.)

이처럼 평생을 유림으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의 삶은 여러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봉제사 집빈객(奉祭祀 接賓客·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담헌은 맑고 속되지 않으며 구속됨이 없는 淸逸의 경계를 보여주었다. 담헌의 사상과 철학은 그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儒脈에 있었다. 따라서 권희문 가옥에 담긴 심미경계는 담헌의 사상과 철학뿐 아니라 선대의 사상과 철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2. 가옥의 축조와 구조의 특징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가옥의 형성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호남지방인 전북은 지리적으로 남부지방에 속하지만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부 산악지대와 서부 평야지대로 구별된다. 이 같은



그림 3. 권희문 가옥 본체, ‘ㄱ’자 형태 가옥 구조
 Figure 3. kwon heemun's house, ㄱ-shape house structure

자연환경은 오랫동안 민중의 생활과 밀착되어 각각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루었다. 그러나 주거의 형태는 서부평야지대가 남부형 홑집이라면 동부 산악지대는 홑집 외에도 반겹집 또는 겹집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는 조선 후기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게 된다. 농민 중에서도 부를 축적하여 양반에 못지않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부류가 나타났다. 농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당시 농업기술의 발달과 상업적 농업경영을 들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는 부안 김상만 가옥·고창 인촌 김성수 가옥·장수 장재영 가옥·권희문 가옥·옥구 채원병 가옥 등이 조선 후기 부농가의 특성을 보여준다. 부농계층은 원래 자연농 계층으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지역 민가의 유형을 모체로 하고 상류 주택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며 생활의 편리함도 추구하였다. 이는 정읍 산외의 김동수 가옥(중요민속자료 26호)과 남원 몽심재(중요민속자료 149호)를 들 수 있다. 김동수 가옥은 1780년경에 지었으며 몽심재는 연당 박동식(1753~1830)이 건립하였다.

김동수 가옥은 너른 평지에 안채·사랑채·문간채·행랑채 등 여러 채가 분산배치 되어 있다. 각 채들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마당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 건축에서 마당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호남지방의 상류주거는 영남의 상류 주거에 비하여 더욱 공간이 분산 배치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김동수 가옥이다. 이 집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건물의 꾸밈 등이 영남의 반가와 비교되는 조선 후기 부농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 내부에서 이와 같은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서양의 열강들과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개항을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서양의 여러 국가들과 강제적인 국교를 맺기에 이르렀다.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에 위치한 김안균 가옥(1922)과 조해영 가옥(1918)·전주 학인당(1908) 등은 우리 가옥의

근대화 과정을 보여준다.(이종근, 「전북의 살림집」 참조)

권희문 가옥은 조선 후기 이러한 호남지방의 가옥과 다르게 250여년의 시간을 두고 중수를 통하여 건립되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강인애, 「傳統住宅 外部空間의 特性과 變用에 關한 研究 : 全北地域 上流住宅을 中心으로」, 우석대학교, 2005.)

권희문 가옥의 사랑채는 담헌의 6대조인 昌彦(?~1786)이 영조49년(1773)에 상량을 올리면서 축조되었다. 상량문은 “송정 기원후 계사 삼월 초십일 묘시 입주미시 상량 을해 오일중수(崇禎 紀元後 癸巳 三月初十日 卯時 立柱 未時 上樑 乙亥 五日 重修)”이며 거의 백년 후 증조 潤壽(1837~1876)에 의하여 1875년에 중수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 담헌에 의하여 다시 중수되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사랑채는 안채를 세운 후 다른 곳에서 옮겨와 지어졌다.

현재의 안채는 고종 23년(1886)년인 증조인 潤壽(1837~1876)가 건립하였다. 이와 같이 안채와 사랑채는 증조가 건립하고 중수하였다. 증조는 山林에 晦迹하여 琴書로 自適하고 거실을 巖汪이라 편액하였다. 사랑채 화단 앞의 서문이 대문이었으나 비좁아서 마차가 드나들기 어렵고 대문 방향이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담헌이 1973년에 따로 문간채를 건립하였다. 이와 같이 누대에 걸친 250년의 기간 동안 중수를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Figure3 참조)

권희문 가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건축양식의 변화도 잘 드러나 있다. 바깥 행랑채와 안 행랑채를 두어 사랑채 공간과 안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의 문간채는 농업에 전념하는 편한 집으로 변하여 두 행랑채가 모두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전라도 지방 가옥의 일반적 특징인 일자형 구조이나 권희문 가옥의 안채는 ㄱ자형(고패집) 구조로 되어있다. 가옥의 기능으로 살펴보면 안채가 중심이다. 사랑채가 네모기둥으로 되어있으나 안채의 전면 기둥은 둥근 기둥으로 되어있음에서 알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 외에 서쪽채·아래채·문간채·바깥채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건축되었다. 집의 배치는 전형적인 상류층 주택의 공간 구성을 따르고 있다. 내외 구분에 따라 사랑채 마당과 안마당으로 구분했으며 안채 뒤에는 뒤뜰이 있다.

“ㄱ”자 모양의 안채 전면에 “—”자형 사랑채가 있고 안채 서쪽에 별채가 직각으로 배치되어 안마당은 “口”자 형

을 이룬다. 안채는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작은방과 찬방(도장방)이 있으며 큰방과 부엌이 찬방 전면으로 돌출된 ㄱ자형 평면이다. 3칸의 대청 중 끝의 한 칸은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랑채는 4칸 규모의 ㄱ자형 팔작집이다. 60cm 높이의 잠석 기단 위에 세웠으며, 2칸의 대청에 이어 뒷방 사랑방이 연이어 있다. 각 실은 툇마루가 있어 서로 연결되며 마루 끝에는 계자 난간을 둘렀다.

방 북쪽을 막아 골방을 두고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다. 문간채는 창고로 개조하였으며 바깥채도 벽돌을 지어 외양간·창고·목욕탕 등을 두었다. 아래채 역시 창고를 비롯하여 담장·돼지우리·외양간 등 축사로 쓰고 있고 서쪽 채는 방과 광과 같은 저장공간으로 꾸몄다.

담헌 가옥의 흙 들담은 토담 하부에 길이 50~60cm 정도의 큰 막돌을 2~3층 쌓았다. 그 후 그 위에 황토를 편 다음 막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벌려놓고 돌 사이에 황토를 채워 넣어 쌓은 구조이다. 현재, 안채·사랑채·서쪽채 등은 거의 원형 그대로이나 나머지 건물은 많이 변형되었다. 이처럼 권희문 가옥은 안채·사랑채·서쪽채·바깥채·아랫채·문간채·나무간채·헛간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권희문 가옥의 造成

1. 가옥의 주위 환경

권희문 가옥의 소재지는 전북 장수군이다. 이곳은 선조와 광해군 때 조정에서 활약한 국풍(國風)이었던 박상희(朴象羲)가 世居地로 선정하였다. 그는 국풍으로서 많은 고관대작 등 권세가들의 음택과 양택을 잡아주었다. 그는 호남사람으로서 묘는 전남 장성호를 내려다보는 곳에 있다.

권희문 가옥의 지형은 영대산(666m)를 主山으로 삼고 있는 금반옥배형(金盤玉杯形)이다.(금소반 모양(金盤形), 금소반의 옥잔 모양(金盤玉杯形), 금소반의 옥병 모양(金盤玉壺形) 등의 형국이다. 소반 위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음식이 놓인다. 따라서 소반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한다. 또한, 금소반 위에 옥잔, 옥병이 놓이면 매우 좋은 형상이며, 평평한 소반의 모양은 넓은 들, 즉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국으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천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구림마을,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등이 있다. 위쪽과

아래쪽의 지형도의 모습이 산의 형세로 보아 술잔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땅의 기운은 의식이 풍족하고 풍류가 있는 마을의 특징이다. 또한, 그곳에 많은 연꽃이 있는 연밭이 있으며 선비의 목향이 피어나는 예술이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희문 가옥은 술병(玉杯)에 짝이 되는 소반(金盤)의 형상이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가옥의 앞 논의 앞 부분은 작은 술상에 해당하는 금반(金盤)의 형상이다. 이는 권희문 가옥에서 바로 보이는 지형이다. 그러므로 권희문 가옥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음양이 서로 사귀고 짝하는 술병과 술상이 갖추어져 있는 지형에 조성되었다. 이는 국풍 박상희가 이곳을 길지로 소점한 이유이다. 이와 같이 권희문 가옥은 金盤玉杯의 명당에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인후한 마을에 사는 것이 좋으며 그러한 곳을 택하여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리요.”(『논어』 「里仁」, “里仁爲美 擇不處仁 焉得知”)와 같이 인심이 좋은 곳에서 살기를 권하였다. 좋은 곳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 지혜이다. 담헌의 入鄉祖가 이곳을 선택한 곳도 공자가 말한 里仁爲美의 실현이다.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오메마을은 담헌의 족향이다. 이는 풍수지리적인 길지이다. 오메마을은 靈臺山에서 發源하는 물줄기를 담고 七峰山에 서린 정기를 받으면서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끼고 있다.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메마을 마을회관 건립기 참조.)

담헌의 선조 가운데 특히 8대조인 翁經과 6대조인 昌彦은 각각 4형제를 뒀으로써 번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5대조인 瀚(은 比憲·載憲·羽憲의 3형제를 두었으며, 증조인 潤壽는 승규의 4형제를 뒀으므로 오메마을을 안동 권문의 족향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메마을은 담헌의 사촌과 육촌·팔촌 등이 함께 우애를 이루며 사는 족향이 되었으며 공자가 말한 里仁이다. 어진 사람이 주로 사는 곳이 里仁이다. 역으로 사촌과 육촌·팔촌 등의 혈육이 우애롭게 살기 때문에 곧 里仁이다.

일찍이 공자는 ‘어질지 못한 사람은 역경에 오래 있지 못하며 행복도 오래 누리지 못한다. 어진 사람은 仁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仁을 이롭게 생각한다.’(『논어』 「里仁」, “子曰 不仁者 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仁者 安仁 知者 利仁”)라 하여 仁을 중시하였다.

권희문 가옥의 조성은 里仁爲美의 표본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삶의 윤택을 더할 수 있었으며 선비정신과 선공후사를 중시하는 유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가계의 사상과 철학을 견지할 수 있었다.

2. 가옥조성의 原理

권희문의 가옥은 조선 후기 호남지방의 양반가옥으로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22호의 민속문화재이다. 이 가옥은 중수를 거쳐 대지에 많은 건물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안채의 넓은 안마당은 비어 있다. 즉, 정원이 조성되지 않아 나무도 없고, 꽃도 없다. 그러나 안채의 뒤편에는 後園을 조성하여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는 공기를 순환시켜 환기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여름이면 텅 빈 안마당의 열기로 인하여 후원의 숲에 있는 찬바람이 대청을 통해 안마당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보통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오르게 되어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람을 끌어오게 되는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안채의 안방문은 윗방의 방문보다 작다. 어른이 주거하는 안방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는 뜻이 있으나 기후에 따른 대처 방법도 담겨있다. 우리나라의 바람은 겨울에 대륙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여 한파를 몰고 온다. 그러나 여름에는 해양의 무더운 공기로 폭서가 지속된다. 이러한 계절의 온도 때문에 방문을 작게 하고 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겨울에 찬바람을 작게 받도록 하고 방안의 열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안 방문도 불편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용도 주저하게 된다.

또한, 부엌 쪽에 안방을 두고 그 위에 대청과 연결되는 윗방을 만드는 것도 기온과 관계가 있다. 즉, 겨울에는 따뜻하게 안방의 실내기온을 보호하고 여름이면 대청과 연결된 윗방의 문을 열어 바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도 과학의 원리가 담겨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이동하는 공간에는 쪽문을 내어놓거나 아니면 사랑채 뒤편으로 문을 설치한 것은 바깥주인이 안채로 이동하는 動線을 고려한 것이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낸 문은 바로 안채에서 바라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뒤편에 방향을 다르게 문을 내어 안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랑채에서 안채를 직접 바라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혜와 과학뿐 아니라 유가 전통의 습속이 담겨있다.

가옥의 조성시 顯陳布勢(드러내고, 진열하고, 포치 하는 기세)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자연물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

하다. 가옥 밖의 정원이나 연못과 같은 원림도 가옥의 조성에 활용하여야 좋은 가옥이 된다. 이를 통하여 詩情까지도 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이 외부 자연물을 이용한 원림의 조성이다.

원림의 조성은 인공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권희문 가옥은 이러한 원리로 원림이 조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문인 선비는 삶의 格을 높일 수 있었다. 중국 명대의 원림 조성의 장인이었던 계성(計成, 1582~?)은 “원림터를 조성할 때는 청당(廳堂)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먼저 경치를 취사선택(取景)하는데 남쪽을 향하는 것이 오묘한 조화다.”(計成, 『園冶』 卷三, 「立基」)하여 원림 조성의 방법이 경치를 선택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원림은 사계절의 변화와 조화를 맞아야 한다. 借景은 遠借·鄰借·仰借·俯借 및 應時而借(때에 맞추어 빌리는 것)으로 원림의 조성의 원리이다.

권희문 가옥에서 정원은 안채의 북쪽에 있는 후원과 사랑채인 巖汪樓 앞에 있다. 사랑채에서 내려다보이는 정원은 너무 아름다운 경계이다.(이는 마치 “줄지어 날아가는 백로에 눈길을 주고, 몇몇 단풍나무 무더기를 바라보노라니 술 취한 듯 얼굴이 붉게 타오른다. 높은 대에 올라 먼 곳을 조망하며 머리를 굽적이며 푸른 하늘에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 활짝 열어놓은 누각에 올라 허공을 바라보며 술잔을 드니 밝은 달이 스스로 나를 찾아온다.”나 “유인(幽人)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산채(山齋)에서 시를 읊고, 일사(逸士)는 대나무 숲 속에서 거문고를 탄다.”와 같은 경계이다.) 자연의 누림은 自適에 있다. 이는 작은 정원에서 자연을 찾고 휴식을 도모하는 문인 선비의 이상이다. 정원의 백미는 蓮池



그림 4. 의왕서 현판
 Figure 4. hang board of the euwangseo

이다. 연지는 한켠에 연을 심어 속칭 연방죽이라 불린 작은 연못이다. 연지는 가옥의 앞 사랑채에서 보이는 안산에 조성되어 있다. 연지는 안산의 수려한 솔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원된 맑은 샘물은 연지로 흘러 들어간다.

연지는 섬진강의 상류에 있어 맑은 물에만 자생하는 민물새우·게·메기·붕어 등이 있어 鳶飛魚躍의 정경을 이룬다. 연지는 현재는 사이에 도로가 나게 되고 농지로

되어 가옥과는 조금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채에서 10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니 조성 당시에는 눈앞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원이었다.

권희문 가옥은 이와 같은 차경의 원리가 정원 조성에 적용되어 자연에서 누리는 삶을 영위하는 문인 선비의 심미 이상을 담게 되었다.

IV. 권희문 가옥의 審美境界

권희문 가옥의 사랑채는 巖汪棲(<도4>참조)이다. 巖汪棲는 巖·汪과 棲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巖·汪에서 巖은 ‘산이 높고 깊음이며’, 汪은 ‘물 휘돌아감’을 뜻한다. 또한, 棲는 ‘깃들어 사는 의미’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당호를 중심으로 권희문 가옥의 審美境界를 자연미학·인간미학의 경계로 살펴보고자 한다.(당호는 건물 주인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관의 당호에 담긴 사상과 철학의 연구에 목적을 두고 권희문 가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권희문 가옥은 중수를 통한 250여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隱秀清麗한 自然美學 境界 指向

권희문 가옥의 심미이상은 自然美學 境界(자연미학의 경계는 도가미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권희문 가옥에 도가미학적 요소인 자연이 담겨있어 명명한 용어임을 밝힌다.)의 指向에 있다. 즉, 이는 권희문 가옥의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도가적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자연은 천지를 포괄하며 여유와 씬을 주며 누리게 하는 원초이다.

일찍이 노자는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老子』 제25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하였다. 이는 곧 넓은 의미의 자연이다. 자연은 있으면서도 없으며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장자는 “가을처럼 처량하고 봄처럼 따뜻하며 기쁨과 노여움의 변화가 사계절과 같이 자연스럽게 천지만물과 모두 어울리는데 그 지극을 알 수가 없다.”한 바 있다. 이는 장자가 이상으로 하는 眞人の 미학경계이다. 이는 곧 인간의 회로애락이 자연에서 大道와 통해야 한다는 경계이다. 남송대의 시인이었던 楊萬里(1127~1206)도 “흐르는 물에 꽃이 지니 봄이 적막하고,

작은 미풍에 햇살이 맑으니 제비가 들쭉날쭉 노니는구나.”(“流水洛花春寂寞 小風淡日燕差池”)와 같은 시로 자연에 거슬리지 않은 정경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연에서 거하는 즐거움이 自樂의 경계이다.(원대의 예찬은 이를 다음과 같이 준 바 있다.“山雲淡縱橫 幽鳥跂上下 寂寞非世欣 自足怡靜者”나 “雲臥雨聲集 庭樹颯以秋 身同孤飛鶴 心若不繫舟”) 이는 모두 자연미학의 경계이다. 권희문 가옥에서 이와 같은 자연미학적 경계의 요소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巖汪棲의 현관의 巖·汪에서 살펴볼 수 있다. 巖·汪에서 巖은 ‘산이 높고 깊음이며’, 汪은 ‘물 휘돌아감’이다. 이는 곧 자연이다. 즉, 巖와 汪은 산과 물을 의미하는 자연의 요소이다.

인간은 본디 자연을 떠나 존재할 수는 없다. 권희문 가옥은 영대산을 주산으로 하는 七峯의 솔숲이 병풍처럼 호위하고 있다. 이는 곧 산이 높고 깊은 巖의 미학 요소이다.

또한, 오메마을은 섬진강의 지류가 발원하는 곳이다. 태조 이성계가 운봉전투를 마치고 넘어갔다는 아침재에서 내려다 본 오메 마을은 배산임수의 너른 분지이다. 五山堤를 흘러나온 냇물은 오메마을을 휘돌아가며 섬진강으로 흘러간다. 이는 汪의 미학요소이다. 이와 같이 巖와 汪은 권희문 가옥이 자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희문 가옥에는 이처럼 자연을 사랑하고, 이를 누리며 살아가는 심미이상이 담겨있다.

둘째, 자연미학적 경계의 요소는 가옥을 조성한 선조들의 미의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아호와 삶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안동권씨, 『鑄洞小譜』 上卷, 1994, 동호문화사. p.53-54.) 이는 자연에서 누림을 가지려는 그들의 심미 이상이 자연미학 경계의 요소를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현관이나 아호에 담긴 미의식 뿐 아니라 안채의 벽면에 새겨진 문양에서도 자연미학의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새싹이 움트거나 꽃봉오리가 맺혀있는 모습이다. 꽃봉오리를 문양으로 만들어 안채의 벽면에 볼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자연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들의 미의식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借景의 원리로 조성된 蓮池도 자연미학의 요소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권희문 가옥의 자연미학적 심미특성은 隱秀와 清麗이다. 隱秀는 빼어남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안에 숨겨져 있는 경계이며, 清麗는 깨끗

하고 고음이 드러나는 경계이다. 따라서 권희문 가옥이 지향한 심미경계는 隱秀清麗한 自然美學이다.

2. 凝神清氣한 人間美學 境界 指向

권희문 가옥의 심미이상은 인간미학 경계(인간미학의 경계는 유가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즉, 더불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유가미학적 속성이 권희문 가옥의 심미요소에 담겨있기 때문이다.)를 지향함에 있다. 이는 곧 유가미학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인간미학의 경계는 곧 유가사유의 삶을 통하여 인간의 이상과 철학을 체현하는 경계이다.

유가는 世間(俗)에서 출발하나 그 세간에 매몰된 것이 아니다. 유가는 궁극적으로 卽世間과 出世間이 지양된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한다. 유가에 있어서의 세간이란 단순히 버려져야 할 것이 아니고 승화되어야 할 대상이다.(이상익, 『儒家 社會哲學研究』, 심산, 2002, P.66.) 그러므로 일찍이 중국의 근대 철학자인 펑우란은 유교의 특성을 ‘卽世間而出世間(세상에 살면서 세간을 벗어남)이라 규정지은 바 있다. 그는 이를 중국의 전통 사상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유가는 인간의 存在原理(天道, 道)를 인간의 규범의 정당한 근거로 삼고 있다.

나아가 자아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생명을 초월함으로 유가가 추구하는 人格美는 실제로 예술미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이다.(張函, 張中秋, 國學學要』, 湖北教育出版社, p.26.) 이처럼 유가는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예술적인 영역에까지 그 이상이 확대되어 있다. 권희문 가옥의 주인들은 그들의 유맥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인간미학의 심미경계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랑채 현관의 ‘棲’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며 同樂을 추구하는 지혜가 담겨있다. 담헌은 棲의 현관을 두고 5대째 살아왔다. 그의 조부 윗대까지 한강 이남 선비라면 이 ‘巖汪棲’를 거쳐 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였다. 특히 이곳을 찾아오는 선비는 누구나 선비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일반 과객도 이곳을 찾아가면 숙식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巖汪棲에서는 심지어 병자의 치료까지 해주었다. 그러므로 권희문가는 積善之家로 알려져 있다.

家傳되고 있는 家釀酒(300년 전에 한양에서 이곳에 정착하여 9대째 이곳에 살고 있는 권희문 家에는 과하주, 식술, 점주 등 다양한 가양주가 가전되고 있었다. 원래 권희문가의 가양주는 과하주, 식술, 점주 이외에도 백일주, 천일주, 떡술 등 더 풍부였다 한다. 이 집 점주는 멧살과 누룩을 주원료로 하여 빚는다. 밀술은 죽을 썬서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고 여기에 고두밥으로 덧술을 한다. 이렇게 덧술을 하여 약 보름간 발효시키면 점주가 완성이 된다. 물을 적게 사용하였기에 단맛과 끈적임이 강하다.)는 같은 씨족 마을의 어른뿐 아니라 의왕서를 거쳐 가는 과객에게도 베풀어주었다. 특히 담헌가에서는 잘 익은 감을 냉장 보관하여 가양주와 함께 주위에 대접하였다. 이는 同樂을 보여주는 담헌가의 전통이다. 이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사상과 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인간미학의 경계의 요소는 권희문 가옥 선조들이 가진 유가사유의 철학과 정신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담헌의 고조인 比憲은 가훈을 克承하여 恭儉孝友하고 가정에 離間한 말이 없었으며 鄉隣이 덕을 欽慕하였다.(안동권씨, 『鑄洞小譜』 上卷, 1994, 동호문화사. p.236-237.) 그리고 증조인 潤壽는 경학에 뜻을 두어 造詣가 精邃하며 律身함에 嚴하였으며 慎思明辯하고 성리학에 치력하여 사람이 그를 推重히 하고 鄉黨이 矜式하였다. 나아가 조부인 升奎는 事親·奉祭·接賓에 있어 家法 遵守를 게을리하지 않고 義理를 분명하였으며, 선고인 永根은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부인 林氏와 함께 事親과 奉祭에 極盡하고 誠敬을 다하여 모두가 그를 칭찬하였으며 孝子와 孝婦로 불리웠다.(안동권씨, 『鑄洞小譜』 上卷, 1994, 동호문화사. p.53-54.) 이와 같은 담헌 선조들의 생활에서 유가사유의 철학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담헌의 의관정제와 선비정신은 조선일보(2007.10.21.)의 “혼탁한 세상에 한줄기 맑은 바람 - 마지막 선비를 찾아서, 전북 장수 담헌옹”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담헌의 유가사유적인 삶과 철학이다. 이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감을 지향하는 그들의 심미이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인간미학의 경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심미요소이다.

셋째, 사랑채인 의왕서의 주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주련은 북송대의 대유학자인 정호(程顥.1032~1085)의 「秋日偶成」詩(“閑來無事不從容 睡覺東窓日已紅

萬物靜觀皆自得 四時佳興與人同 道通天地有形外 思入風雲變態中 富貴不淫貧賤樂 男兒到此是豪雄”이다. 정호의 시는 참다운 인간을 지향함에 있으며 인간이 누리고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를 의왕서 현판으로 채택하여 판각하여 주련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추구하였던 심미의 이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즉, 程顥의 「秋日偶成」 경계를 되뇌이고 싶어 사랑채의 주련의 시구로 삼았음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안채의 서쪽에 있는 별채의 현판(삶은 한 가지의 꽃에서 나왔고 신령은 두툼한 잎사귀에 있네. 빛나는 떨기는 서울 남산에서 피었고, 아름다운 뿌리는 안동에서 왔구나.(生出一枝花 炳靈中幹葉 燁叢敷木覓 芳根自永嘉)도 이를 보여준다. 안채 앞에 보이는 별채 기둥에 붙은 주련(柱聯)이다. 여기에서 木覓은 서울 남산이고 永嘉는 안동의 고호(古號)다. 즉, 집안의 본관이 안동이고, 원래 살던 곳이 서울 남산임을 보여준다.

담헌의 선조들은 본향을 떠나 벽지인 오메마을에 몸을 두며 살면서 자손만대의 번성도 기원하고 있지만,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들의 유가미학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사랑채인 의왕서의 현판이나 벽면에 새겨져 있는 사군자의 문양에서도 유가미학이 담긴 상징이다.

이와 같이 권희문 가옥이 지향하는 심미 이상은 유가사유의 더불어 살아감을 지향하고 있다. 그들의 인간미학적 심미특성은 淸氣와 凝神이다. 淸氣는 더불어 살아감에 맑음을 지향함이고 凝神은 함축된 철학과 사상이다. 따라서 권희문 가옥이 지향한 심미경계는 淸氣凝神한 人間美學이다.

이와 같이 권희문 가옥심미경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巖汪棲 현판에서 핵심적으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곧, 巖·汪은 자연미학의 경계이며, 棲는 인간미학의 경계임을 보여준다. 이는 각각 隱秀華麗한 자연미학, 凝神淸氣의 인간미학이 심미경계 특징이다.

V. 결 론

본고는 朝鮮 後期에 湖南地方에 조성된 양반가옥의 심미경계를 권희문 가옥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권희문 가옥은 안동 권씨의 22대조가 한양의 남산에서 광해군의 사화를 피해 전북 장수에 정착함으로써 250여년의 기간을 두고 조성된 조선 후기의 양반가옥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른 권희문 가옥은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 그들이 추구한 심미의 이상은 自然美學 境界·人間美學 境界의 지향에 있다. 이는 권희문 가옥 사랑채의 현판인 의왕서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自然美學의 境界는 隱秀하고 淸麗함이 특징이며 이는 의왕서 현판인 巖·汪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人間美學의 境界는 凝神과 淸氣임이 특징이며 의왕서 현판인 棲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희문 가옥의 심미경계를 통하여 朝鮮 後期에 湖南地方에 조성된 다른 양반가옥의 심미경계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References

- [1] 宗炳, 『畫山水序』
- [2] 計成, 『園冶』卷三. 「借景」
- [3] 石濤, 『苦瓜和尚畫語錄』
- [4] 張函, 張中秋, 『國學學要』
- [5] 안동권씨, 『籌洞小譜』上卷, 1994, 동호문화사
- [6] 이상익, 『儒家 社會哲學研究』, 심산, 2002,
- [7] 황진, 『晚隱遺稿』
- [8] 권숙, 『華山遺稿』
- [9] 김훤, 「全南地域 兩翼形 傳統家屋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2006.
- [10] 박진기, 「경상북도 북부지역 口자 가옥의 꺾음형 지붕구조와 건축계획특성」, 경북대학교, 2017.
- [11] 김용집, 「韓國 傳統住居建築의 空間構成要素에 관한 研究 : 井邑金東洙氏 家屋을 中心으로」, 朝鮮大學校, 1983.
- [12] 민경철, 「조선시대 반가의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 괴산 김기응 가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1.
- [13] 양문이, 「朝鮮時代 上流住宅 樓마루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2003.
- [14] 허성은, 「陰陽思想적 空間構成에 관한 연구 : 朝鮮 班家 建築을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2000.
- [15] 황인수, 「지역별 전통주택의 안채와 사랑채 특징 고찰」, 한양대학교, 2015.
- [16] 홍승재, 「전북의 근대한옥」, 한국주거학회 2005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13~24, 2005.
- [17] 이현식, 「18世紀 朝鮮 上流住宅의 空間的 特徵 : 雲鳥樓·三可軒·金東洙 家屋을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2005.
- [18] 최삼용, 『화산처사(華山處士) 권숙(權壽)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전라문화논총 1권 0호